

2015 광주 아시아 아카펠라 페스티벌



컨템포러리 아카펠라 그룹 'EXIT'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s'

여름밤 식히는 '천상의 하모니'

17~18일 광주교대 풍향문화관

연대학생 경연·그룹 4팀 '갈라 콘서트'

금남공원 초등학교 교사 13개팀 무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라는 말이 있다. 반주없이 여러 사람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카펠라의 선율은 '천상의 하모니'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다.

아카펠라의 향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아카펠라협회와 아시아 아카펠라 네트워크 '보컬아시아'가 주최하고 2015광주아시아아카펠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혜일)가 주관하는 '2015 광주 아시아 아카펠라 페스티벌'(이하 아카펠라 페스티벌)이 17~18일 이틀간 광주교대 풍향문화관과 금남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6개국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던 첫 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해외 지역 참가자가 줄어 아쉽기는 하지만 민간 단체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없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올해 아카펠라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18일 오후 7시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열리는 '갈라 콘서트' 무대다. The Present, 강인창, 토리's, EXIT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아카펠라 그룹 4팀이 무대를 꾸민다.

헌성 5인조 아카펠라팀인 The Present는 광주·전남을 중

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팀으로 '남을 위한 행진곡' 등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곡들을 선보여왔다. 최근 광주음악창작소 앨범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11월 아카펠라 정규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들은 '마법의 성' '빛고을 아리랑' 'We are young' 등을 들려준다.

강인창은 서울 흥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맨 아카펠라 뮤지션이다. 그는 음향과 노래 사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디지털 사운드와 믹싱해 새로운 음악장르를 표현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s는 지난 2012년 러시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있는 팀이다. '강남 아리랑' '개타령' '아리랑 연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남성 5인조 컨템포러리 아카펠라 그룹 EXIT는 강렬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하는 경쾌한 리듬과 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 팀은 지난 2013년 중국에서 열린 국제아카펠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만 등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담배가게 아가씨' '스페인' 등 곡을 선사한다.

갈라 콘서트 티켓은 1만~2만5000원이다. 예매처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앞서 1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는 아시아 대학생 아카펠라 경연대회가 열린다. 싱가포르와 한국을 포함해 5개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상금은 300만원이다.

또 18일 오후 3시30분 금남공원공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13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 한국아카펠라 교육연구회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문의 070-4152-542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상 3000만원...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제정

고흥 출신...남도 대표 서정시인 정신 계승
운영 조례 공포...9월 30일까지 작품 접수

남도의 대표 서정시인 송수권의 문학적 성과와 업적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된다. 생존하는 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 제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송수권 시 문학상은 시인의 고향 고흥뿐 아니라 남도의 문학적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인(76)은 지난 1975년 문학사상 시인상에 '산문에 기대어' 외 4편으로 등단했다. 그동안 전라도 정서와 가락을 토대로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일구었으며 소설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김영랑문학상, 구상문학상 등 내로라하는 문학상을 수상했다.

고흥군은 "한국 최고의 서정 시인이자 김소월을 잇는 순수문학의 기수 송 시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문향 고흥을 알리고자 '송수권 시 문학상'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 공포와 함께 시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분야, 시상계획, 시기, 공모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토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공모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 분야로 한정한다. 작품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간된 시집으로 기성 부문 시집 1권, 신인 부문 시 10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에는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군은 송수권 시 문학상 제정과 함께 시 낭송대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낭송대회는 선착순 50명으로 한정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상식은 11월에 송수권 시 문학상과 함께 개최하며 대상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문화예술과 담당공무원 유정임 씨는 "고흥에는 목일신 등 요작가와 조종현 시조 시인, 박노해 시인 등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문인들이 많다"며 "이번에 제정된 '송수권 시 문학상'을 계기로 문학의 고장 고흥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1-830-5898.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계 27개국 155개 도시서 하우스 콘서트 '원먼스 페스티벌'

광주·전남 7월 한달간 풍성한 공연

대인시장·장성·목포·나주 등 무대

지난 2000년 음악가 박창수씨의 서울 자택에서 시작한 '하우스 콘서트'는 획기적인 기획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씨는 2012년부터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사건'이라는 타이틀로 전국문화예술회관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관객들이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하루 동안 한중일 94개 공간에서 '원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달간 '원먼스 페스티벌(one month festival)'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27개국 155개 도시에서 432회 공연이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주·전남에서도 행사가 한창이다. 국내 최고의 마임리스트 유진규씨가 장성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섰고, 광주 솔트아트갤러리에서는 재즈 콘서트가 열렸다.

17일 오후 8시에는 대인시장 안에 위치한 라인 무지크에서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사(강남대 교수)와 히로타 순지(수원대 교수) 초청 공연이 열린다. 두 사람은 이번 연주회에서 스트라빈스키 등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24일에는 같은 공간에서 크리에이티브 그룹 '배짱이'가 슈만의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한다. '배짱이'는 지난해 열린 '원데이 페스티벌'에도 참여했다.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157-7320.

21일 오후 7시에는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해금 주자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사

남미선과 어희선, 가야금 연주자 양보나씨가 공연을 갖는다.

'문화가 있는 날'인 29일(오후 7시)에는 '달콤한 문화 마을 작은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하루는 광주와 전남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담양문화회관에서는 바리톤 김재일, 소프라노 이소연, 피아니스트 김기화씨가 함께하는 공연이 열리며 목포문화회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선기와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테디 니드마이어가 무대에 오른다. 또 퍼커션 연주자 기현정씨와 플루티스트 권영일씨는 나주문화회관 무대에 선다. 그밖에 영광예술의전당에서는 'AYF 앙상블'이 광주서구문화센터(오후 7시30분)는 허니 보이스가 공연한다. http://onemonthfestival.com/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도 능력 부치면 물러나는 것이 정도"

조정래, 신경숙 표절 논란에 일침

작가 조정래는 최근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신경숙 소설가를 비판하며 절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작가는 공개된 '인터파크 북DB'와 인터뷰에서 "모든 예술가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도 자기의 능력이 부치면 그만 물러가는 게 정도"라며 "운동선수만 은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도 '아 도저히 능력이 안 되겠다' 그러면 깨끗이 돌아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작가는 "표절은 예술가가 목숨을 걸어놓고 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예술 작품을 읽고 나면 '잘 썼네. 나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여기까지가 용납되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옮겨서 내 것으로 하면 표절"이라며 "자기도 이렇게 쓰고 싶다고 노력을 해서 그걸 넘어섰을 때 창작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